



08차시 국가별 다문화교육

1. 호주의 다문화 교육 현황

1) 호주의 다문화

호주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 인정받을 만큼, 다문화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하였음.

호주의 이민역사는 1799년 영국이 호주로 죄수를 보내면서 시작되었음. 당시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였음. 1830년대 이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은 이민자가 늘어오면서 백인 중심의 국가가 형성되면서 백호주의라고 불리는 백인 중심의 국가가 되었음. 원주민은 반인권적 탄압을 받았으며, 유색인종의 규제도 이어졌음.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적 이유로 인구의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 이민정책을 확대하여 이주민을 받아들였으나, 동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 정책을 펼쳤음. 1972년에 백호주의를 철폐하고, 동화주의적 정책을 다문화주의적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였음. 1978년에 호주정부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하나의 다문화 호주 사회라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또한 인종주의 압력에 의해 폐지되었던 이민민족부를 다시 설립하여 여러 민족집단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호주정부가 아시아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호주이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1989년에는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발표하였음. 2000년에는 아젠다 실천을 위한 '다문화 호주위원회'를 설치하였음.

호주이민은 호주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이주민의 수적 증가뿐 아니라 유용한 인재 유입에 중점을 두었음.

2) 호주의 다문화 교육

호주는 연방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맞춰 주마다 다문화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호주의

다문화 교육은 호주 안에 있는 언어, 인종, 종교, 민족 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들과의 사회통합임.

1970년 다문화 관련 정책 기조가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전환되면서, 교사는 제2언어를 가르치고 이민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위해 교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1978년에 재정 지원프로그램으로 되면서 다문화 교육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음.

2. 미국과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 현황

1) 미국의 다문화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이민자의 유입을 통해 형성된 대표적인 이민국가라고 할 수 있음. 미국은 다양한 유럽인들에 의해 형성된 국가로 건국 초기 백인중심 다문화국가임. 백인중심의 다문화사회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비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을 자신들의 문화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동화주의적 성향을 드러냈음. 다수의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고유성을 버리고 뜨거운 용광로에 의해 다 녹아버리듯이 백인문화에 동화되는 상황에 몰리자, 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았음.

1960년대는 미국의 차별, 동화주의 정책이 문화다원주의 정책으로 바뀜. 1964년에는 시민권법이 제정되었음. 시민권법 제정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인종 및 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은 금지되었으며, 이후 모든 교육프로그램에서 인종 및 민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금지 관련 초중고교육법이 제정되었음. 1972년에는 민족유산연구법이 제정되었음. 민족유산연구법으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1974년 이중언어교육법 정책을 선포하였음. 1970-1980년대에는 보상교육, 이중언어교육,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에 중점을 두었음. 2002년 부시대통령은 낙오자 없는 교육(No Child Left Behind: NCLB)을 해야 한다며, 모든 시험은 영어로 치러져야 한다고 했음. 그는 이중언어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지, 공교육에서까지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음. 2005년부터 미국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소수자 정체성 보호와 미국 사회 적응 지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음. 이에 등장한 개념이 아메리칸 모자이크임.

2) 미국의 다문화 교육

초창기 미국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백인들을 대상으로 흑인들에 대한 인종갈등 및 편견 감소를 목표로 하였음. 그러나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등 다양한 이민자 집단이 증가하면

서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계층, 성별 등 소수집단의 평등을 주장하는 다문화 운동으로 내용이 확대되었음. 오늘날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과 차별로부터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은 물론, 모든 학생이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함양하도록 하는 근본교육을 목표로 함.

1954년 브라운 판결 이후 연방정부가 교육 정책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1960-1970년대에는 흑인과 백인 간 통합교육을 시도했으며, 유색인종의 고등교육 지원하였음. 1970-1980년대에는 보상교육, 이중언어교육,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였음. 1980년에는 난민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였음.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살펴봐야 함. 연방정부의 경우는 다문화 교육 정책 관련 입법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주 실정에 맞게 다문화 교육 과정운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다문화 교육 목표는 백인 주류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적 자원주의, 문화 간 상호 이해와 작용, 인종그룹 간의 관계가 인간관계로 이어져야 함으로 설정하고 있음. 다문화 교육에 따름 지침(GME)은 네 가지 임. 첫째, 공교육은 인종적 및 문화적 다원주의를 실천함 둘째, 동화는 더 이상 다문화 교육의 목표가 아님 셋째, 학교는 다양성의 사회를 교육하는 공적 행위자이자 이 책임과 도전은 계속되어야 함 넷째, 다문화 교육의 핵심인 학교는 커뮤니티의 파트너임. 또 다른 예로, 위스콘신주는 영어 수준에 맞게 시간표를 달리 편성하여 학생에게 맞는 수업을 제공하는 ELL 수업이 있고, 다문화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 내 다양한 문화축제를 통한 다문화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3) 캐나다의 다문화

캐나다는 1971년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였음(미국은 1975년 문화복수주의정책 채택). 정책적으로 인종, 민족에 따른 차별을 일체 배제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였음. 캐나다는 용광로 모델을 선택한 미국과 달리, 모자이크 모델을 선택한 국가로, 모든 민족은 캐나다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공식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채택한 이후, 고학력 투자이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1982년에 권리와 자유 헌장이 제정되어 인종차별이 위헌으로 규정되었음. 1988년에는 다문화주의 법을 제정하였음. 1990년에는 다문화주의와 시민권부라는 기구를 설치하였음. 이 기구는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을 전담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음. 그것은 바로 퀘벡 주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분리운동을 차단하려고 한다는 것임.

4)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

캐나다는 고등학교까지 영어, 불어는 물론 제3외국어를 함께 습득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캐나다는 소수민족의 정체성교육, 소집민족 간 교류를 강조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신감 배양을 강조하고 있음.

교사는 다문화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다문화교육지침을 숙지하여야 함. 교사는 학생들에게 반편견, 반차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교 자체가 다문화 교육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학교는 이민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와 협조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3. 독일과 영국의 다문화 교육 현황

과거 유럽은 여러 민족국가들이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던 곳이었음. 정복과 팽창의 형태로 국익을 우선시하였음. 그러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엄청난 인명 및 재산의 파괴를 경험함.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통합을 추진하였음. 2017년 4월 현재 EU에는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음(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EU에서 탈퇴하였음.

유럽은 유럽연합(EU)로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임.

1) 독일의 다문화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었음.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포르투갈, 튀니지, 모로코, 유고슬라비아 등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수입하였음. 원래 이들은 계약기간인 3년 동안만 일하고,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손님노동자(Gastarbeiter)로 불리었음. 그러나 대부분이 계약을 연장하여 독일에 머물렀음. 1973년 석유위기로 독일도 경제위기를 겪게 되자, 손님노동자 유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 독일의 다문화 교육

독일은 1970년부터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음. 1970년

대 다문화 정책은 증가하는 이주민들이 독일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으로 진행되었음. 당시 독일정부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외국인교육(Auslaenderpaedagogik)을 실시하였음. 이 교육은 특수교육이라고도 불리며,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을 독일 학교와 독일 사회 내에 동화시키는 것이었음.

그러나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타문화의 고유성과 상이성을 이해하자는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음. 1980년대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들이 가족들을 초청하게 되면서, 그들이 2세를 출산하게 되면서 독일 내 외국인 수는 더욱 증가하였음. 처음 이들이 독일에 왔을 때는 손님노동자였지만, 이들의 독일 거주로 독일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증가하는 외국인 수에 따라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독일정부는 이들이 학교에서 사회통합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다문화 사회에서의 상호문화이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였음. 독일에서 상호문화교육은 유입된 소수민족들만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인들 역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음.

1996년에는 문교부장관회의에서 ‘학교에서의 상호문화교육’권고안을 결정하였으며, 처음으로 상호문화교육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일반교육’으로 규정하였음. 2012년에는 국가통합실행계획에서 ‘동등한 권리의 공유가능성을 위한 배경조건들과 학교교육, 직업교육, 일반적인 계속교육에의 접근가능성을 최적화하는 것’, ‘학교교육, 직업교육, 계속교육 제도의 이행과정을 구조화하고 보장하며, 교육제도를 사이의 접근통로를 확대하는 것’, ‘개인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 청소년, 성인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 ‘질의 보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교육 분야의 연구를 정교화하며 독일 교육에 대한 보고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음. 2013년에는 문교장관이 “문화다양성과 다양한 언어는 우리 사회의 재산이며 기회이다.”라고 말하며 학교에서의 상호문화교육을 강조하였음.

3) 영국의 다문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영국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의 국민이 대규모로 영국으로 이주해 왔음. 영국은 이주민과의 통합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은 인정하되 영국 문화가 개별 민족의 다원성 위에 존재하는 영국문화우월주의 다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영국의 다문화 정책은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음

1단계는 사전 정치적 합의의 단계로 1948년부터 1961년까지 임. 2단계는 본격적 논쟁의 단계로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임. 3단계는 정치적 합의의 단계로 1965년부터

현재까지를 지칭함.

1960년대 영국으로 온 이주민이 영국식민지였던 국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 다른 유럽 나라로부터 온 이주민도 다수를 차지하였음. 영국정부는 이들을 영국 주류문화로 통합, 흡수 시키려는 정책을 실시하였음. 즉 문화적 동화주의를 통해 인종, 민족, 종교 등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던 것임. 이에 다른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영국인과의 결혼을 장려하였으나(결혼장려정책), 다른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은 민족,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국인과의 결혼을 꺼려했으며,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흐려진다면 결혼을 꺼려하였음.

1976년 인종관계법이 제정되면서 이민자 자녀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인종평등위원회에서 소수인종 보호 정책이 강화되었음. 2008년부터 이민신청자를 5개 계층으로 나누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취한 자에게만 이민을 허락하고 있다.

4) 영국이 다문화 교육

영국의 다문화 교육은 영국정부정책에 입각해 발전하였음. 영국정부는 다문화 교육 내용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입시켰고, 다문화 교육을 위해 교사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교육 개혁을 실시하였음.

1992년에는 다문화주의적 감성과 가치를 바탕에 둔 국가적 교육커리큘럼을 시행하였음.